평화방송 인터뷰 내용

2003. 11. 19(수), 08:15~08:25

1. 안녕하세요? 지난 7월부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역할과 활동 등 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철환입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확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에 처음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쉬운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인류가 무한히 경제성장과 개발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198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전세계 약 200개국 정상들이 모여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리우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나 생태계 정화능력에 한계가 있는 지구 상에서 현재 우리 세대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 즉 후손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을 이루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리우 회의 이후 10년만에 지난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빈곤문제, 물 문제, 기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00년 9월 처음으로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기를 거쳐 지금 참여정부 3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고철환 위원장 부임이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지요.

우선 기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물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비전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이고 석유수입 세계 4위, LNG 수입은 세계 2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협약 발효를 위해 유럽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회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안보,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지 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 문제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물은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문제나 수량문제 모두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맑은 물을 안심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심각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지만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 사이에 갈등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이대로 계속되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자체가 무의미한 구호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후,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3. 위원회의 위원수가 크게 늘고, 위원 위촉방식도 크게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다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도 예전과 다르게 보다 포괄적이고 풀뿌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갈등문제와 지속가능발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론을 통해 합리적인 지혜를 얻어나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전처럼 대통령이 위원을 모두 임명하고 그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하향식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키워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 전문가 중심의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보다 폭 넓게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약 80명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대표성을 갖는 48분을 모시고 대통령이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직능대표의 성격을 갖는 32분을 위촉하여 지역과 직능을 함께 대표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시도별 시민단체에서 각각 1명씩 위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훌륭한 분들로 모실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아래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으로 안건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래 제도개선홍보전문위원회, 갈등해결정책전문위원회,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환경·건강전문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일 계획입니다.

4. 그렇다면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회적 갈등문제 등도 다루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최근 정부에선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문제를 공론조사로 풀겠다고 했고, 고속철도 청성산, 금정산 관통을 불교계가 반대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새만금 사업도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원의 해결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검토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갈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직접해결방안을 찾는 것보다는 이런 갈등 사안들에 대해 사후적인 해결방안과 사전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 관련 문화, 제도, 갈등해결 시스템, 교육·홍보 등 분야별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갈등 사안은 가능한 한, 기존의 갈등해결 시스템이나 당사자 참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기존 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극히 소수의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5. 각종 사회적 갈등현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부처와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방침이신지요.

기존 시스템에서 해결하기 힘든 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지 검토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책집행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바람직한 갈등해결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홍보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끝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향후 활동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매우 권위 있는 미래지향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위원회 전체 워샵을 통해 향후 비전과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 에너지, 국토, 보건, 갈등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